

일간지에 나타난 장애관련 용어 서술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2007년 장애관련 법 제정을 중심으로

최 성 욱*

부산 낙동초등학교 교사

이 제 화

영남이공대학 전임강사

도 명 애

대구 늘사랑어린이집 원장

허 유 승

제주 대기고등학교 교사

이 정 남

원주 청원학교 교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동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장애관련 법’이라 함)등의 장애관련 법 제정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식 변화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특수교육, 사회복지 등을 비롯한 제반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주요 일간지 중에서도 보도 성향을 달리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기사내용을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 기사의 주제별 성격, 장애유형별 빈도, 용어 서술 실태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정 이전, 제정, 이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신문기사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언어는 인류가 도래하면서부터 유, 무형의 도구로써 개인의 관념 및 그 사회의 문

* 교신저자(byeyou2000@hanmail.net)

화를 투영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는 언어 인류학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면서 학문적으로 구체성을 띠게 된다(왕한석, 1996; 최성규, 박종훈, 2002; 최성규, 2004; 최성규, 이숙조, 2005). 60년대 이후 Sapir에서 Whorf와 Boas등으로 이어지는 언어 인류학자들은 의사소통의 민족지학(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사회 언어학(sociolinguistics) 등으로 언어를 통해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Boas와 Franz, 1911; Sapir, 1921; Whorf와 Benjamin Lee, 1956; Mandelbaum과 David G, 1949).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요소, 언어 구조의 보편적 요소, 독립적인 합일점(convergent) 발달, 전과 등의 요인들과 더불어 언어의 유사성을 통해 역사적 관계에 관한 진실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왕한석, 1996). 이는 언어학 연구가 단순히 언어의 발달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전과 과정에 있어 개인-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Sherzer, 1973). 50년대 이후 언어 인류학자들은 언어-문화-인지로 이어지는 민족과학(ethnoscience)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켰다. 이 학문의 대표주자인 Goodenough(1956)는 문화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사하게 인식하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이 형태를 다시 재구조화하는 일련의 모형에 가깝다고 정의하였다. 즉, 문화는 언어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패턴인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의사소통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서양뿐만 아니라 언어의 가치 및 사회성을 인정하려는 학문적 주류는 동양에서도 있어 왔으며,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유식학을 들 수 있다(이지중, 2003).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앗과 깨달음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세계를 지각할 수 있으나 실제 존재하는 현상의 본질은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아 언어를 정형화되어 있는 형상이나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언어가 가지는 사회성과 역사성의 전면을 엿볼 수 있다(이지중, 고진호, 2005). 언어는 문화를 재정립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문화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구현정, 2002). 문화를 연구한다는 의미의 문화읽기에서 보면 문화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양식 및 시대정신을 대변하거나 역동적으로 재구조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또한, 이는 예술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구현정, 2002; Hoggart, 197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언어는 개인,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소통 수단이며 상호 역할도 동시에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는 비슷한 인식 패턴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그 시대상황을 유추 가능하며, 문화의 질이나 가치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최성규, 박종훈, 2002; 최성규, 2004; 최성규, 이숙조, 2005).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지역에서 동일언어 동일민족으로 세대간 전승을 지속해오면서, 보편적 인식인 시대정신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인 의미의 언어들을 사용해왔으며, 이는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단순한 생계형 삶에서 벗어나 웰빙형 삶 즉, 삶

의 질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와 같이하여 영상, 문학 등의 문화예술 장르로 표출 되기에 이른다(김미정, 2000; 최성규, 2004). 영상이나 문학작품 속 인물의 삶, 배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 시대의 전반적 인식을 투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근대사회 이후 나온 대부분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세대간 전승을 통해 고착되어온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경수, 1996; 최성규, 2004).

부정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내면화된 어휘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최성규, 2004). 이처럼, 내면화된 언어는 실질적, 형식적, 구성적 관념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박경자, 유석훈, 1986; 이효신, 2003, 최성규, 2004). 실질적 관념은 평등권과 교육권 등의 법적 의미에 의해 형성되는 관념이다. 형식적 관념은 실질적 관념에서 제시한 법적 의미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관념이다. 이상의 실질적, 형식적 관념을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여 나가게 된다. 구성적 관념은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구성하는 관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의 실질적, 형식적 관념은 구성적인 관념과 상호작용을 통해 한 인간의 전반적 인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 변화에 있어 실질적, 형식적 관념을 통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이들도 소수자, 약자의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같이하고 있으나 구성적 관념인 개인적 태도 변화에 의해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이효신, 2003). 이는 최근 통합을 강조하는 장애관련 제반 학문의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내면화된 언어를 통해 이미 고착되어 나타난 신념을 변화시키기란 여의치 않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이를 위해 사회적 신념 이전에 개인적 신념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이효신, 2003; 최성규, 2004).

우리나라도 점차 고학력, 저출산 등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국가형태에서 벗어나 3차 서비스산업, 복지 등을 중시하는 선진국형화 되어가면서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소수,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들에 대한 일시적 수혜적 개념 및 지원 등의 미봉책에서 탈피하여 정부차원의 지속적, 확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으로 나뉘어 관련 주무부처, 영역의 차이로 인하여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의 근거가 되는 장애관련 법상의 용어에 있어서도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실례로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장애’, ‘장해’, ‘장애우’,

‘장애인’, ‘장애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대조되는 의미로 ‘비장애인’, ‘일반인’, ‘정상인’ 으로 뚜렷한 틀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귀머거리 같은 용어는 순수 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어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의 사용은 개인적 신념과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다분하다(최성규, 2004). 언론 등의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약자로서 힘겹게 생을 이어가는 대상으로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대상’,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슈퍼맨과 같은 대상’으로 장애를 형상화시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판적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이들의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며, 언론 보도가 사회 전반적인 담론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방송 저널리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심훈, 2003; 이정숙, 2004).

이처럼, 매스미디어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상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스미디어의 기능을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우정아, 2000). 첫째, 환경감시 활동을 수행한다. 환경감시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일컫는다. 둘째, 상관조정 활동을 한다. 상관조정이란 단순 정보전달에서 나아가 의미를 파악하고 대안 책을 제공하여 사람의 태도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은 일간지 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활자로 인쇄되어 기록으로 남아 분석이 용이하며, 사회 계몽성을 강하게 띠는 장점이 있다(윤희중, 1985; 홍용신, 2004; 배현정, 2006).

최근 들어 신문 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신문 구독률, 열독률, 광고 점유율 등의 지표 모두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별 종사자 현황에서는 타 매체(방송, 통신, 케이블 TV 등)에 비해 가장 높은 34.7%로 나타났으며, 광고 매출액 및 점유비에 있어서도 TV 28.6% 다음으로 큰 비중인 2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언론재단, 2007; 양문석·김동준, 2008; 이용성·김정순, 2008).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매스미디어가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주요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 매체로 신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용어실태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언어를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 전국신문이 전체신문의 9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언론수요자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한국언론재단, 2006). 조선일보의 경우 1920년 창간 이래 장애인 기사 관련 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지로서 보수언론을 대표하고 있으며(김미혜, 2004;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1997; 배현정, 2006), 한겨레신문은 1975년 동아, 조선일보 자유언론수호 투쟁 해직기자들과 1980년 정

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해직된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1988년 5월 15일에 창간한 신문으로 대중의 정론지를 지향하며 진보언론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기사보도 행태에 있어서도 두 신문간 뚜렷한 성향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분석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동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장애관련 법’이라 함)등의 장애관련 법 제정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식 변화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특수교육, 사회복지를 비롯한 제반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일간지에 나타난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은 어떠한가?
- 2) 최근 일간지에 나타난 기사의 주제별 성격은 법제정 이전, 제정, 이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 3) 최근 일간지에 나타난 장애유형별 빈도는 법제정 이전, 제정, 이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 4) 최근 일간지에 나타난 용어 서술 실태는 법제정 이전, 제정, 이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매스미디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선택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근 1년 동안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전체 기사 중 장애관련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관련 용어를 수집하기 위해 조선일보(<http://www.chosun.com>)와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장애’, ‘장해’,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등의 주제로 기사검색을 실시한 결과 총 4865건의 장애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장애인을 지칭하는 유사용어인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등은 분석 결과 ‘장애’라는 검색내용과 중복되어 ‘장애’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며, ‘장해’는 의미를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장애’ 1671건 중 ‘장애인’ 817건, ‘장애우’ 56건, 장애자 26건, ‘장해’는 1214건으로 총 2885건 이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장애’ 1949건 중 ‘장애인’ 1003건, ‘장애우’ 54건,

장애자 21건, ‘장애’는 31건으로 총 1980건으로 나타났다.

2. 분석 내용

2007년 장애관련 법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최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장애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방법 관련 도서(남기성, 2006; 성태제·시가자, 2006; 최현철, 2003) 및 기사 분석 관련 선행연구(김성완 외, 2000; 김호연, 2005; 배현정, 2006; 우정아, 2000; 이정숙, 2004; 정화원, 2005; 홍용신, 2004)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작성하였다. 그 기준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수교육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모여 분석유목에 관해 1차 검토를 하여 기준을 작성하고, 다시 연구자 4명이 함께 모여 2차 검토를 실시한 연후에 그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표Ⅱ-1> 논문 분석유목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영역은 모든 분석대상 기사에 대해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 기사의 주제별 성격, 장애유형별 빈도, 용어 서술 실태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정 전, 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표Ⅱ-1> 논문 분석유목

유목	분석내용	
용어의 월별 동향	법 제정 이전(1-3월), 법 제정(4-5월), 법 제정 이후(6-12월)	
기사의 주제별 성격	재활일반, 의료, 특수교육, 문화·특수체육·행사, 인물·미담사례, 사건·사고, 재활공학, 취업·고용, 사회·심리, 제도·정책, 접근법	
장애 유형별 빈도	정신지체(지적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신장, 심장, 간장애), 기타	
용어 서술 실태	긍정	기사의 주제별 내용들이 긍정적인 의미나, 기회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
	부정	기사의 주제별 내용들이 부정적 의미나, 기회감소 및 박탈등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
	기타	위의 두 유형과 상관없이 단순한 안내 등의 소식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

1)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

용어의 월별 동향은 분석 대상 신문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전체기사 중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관련 기사의 빈도를 살펴본다. 월별 동향을 비교하였다.

2) 장애관련 기사의 주제별 성격

기사의 주제별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인 신문 기사 보도의 주제별 분류에 더하여 우정인(2002)이 신문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의 기사의 주제별 분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주제별 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일반, 의료, 특수교육, 문화·특수체육·행사, 인물·미담사례, 사건·사고, 재활공학, 취업·고용, 사회·심리, 제도·정책, 접근법이며, 기사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표Ⅱ-2>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표Ⅱ-2> 기사의 주제별 성격

구분	내용
재활일반	재활공학을 제외한 재활과 관련된 모든 내용(물리, 언어, 행동치료 등 전반적인 치료와 관련된 내용과 사건, 사고 후 재활치료 등의 기사내용으로 재활과 전문의를 제외한 전문의 등이 기사화한 내용은 제외하고 주된 대상은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재활관련 준 의료인들을 주제로 한 기사내용으로 한정)
의료	의사가 병적인 증상을 장애로 판정하거나 교육, 홍보한 내용, 의학상식 및 의학칼럼(예, ADHD의 증세, 불안장애의 징후)에 관한 설명 포함
특수교육	교육장면에서 일어나는 교육관련 기사 내용(교육 장면 이외 병원 등에서 행하는 의료나 재활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단, 학령기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 공립, 사립, 사설 교육관련 기관을 모두 포함)
문화/특수체육/행사	문화행사 안내, 특수교육 관련 기관이나 복지시설, 장애인 협회, 정부 관련 부처 등에서 행하는 각종 교육 행사 및 안내 기사, 광고 포함
인물/미담/사례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극복과 도전에 관한 기사, 기부나 봉사 등과 관련된 훈훈한 이야기, 사례 등을 포함
사건/사고	안전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각종 후유장애 발생과 관련된 내용, 부고 내용 포함
재활공학	장애인 지원을 위한 각종 보장구나 ICT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
취업/고용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 행한 장애인 취업이나 모집 등과 관련된 내용, 장애 관련 기관 종사자 인사이동
사회/심리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장애인식이나 이해, 인권 등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내용 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와 관련하여 사회전반의 인식이나 이해와 관련하여 사회에 대항하거나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 중심주체가 장애인과 관련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장애관련 용어 포함(예, 화물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부산항 물류 장애 발생 등)

구분	내용
제도/정책	장애관련 각종 법령 및 규칙, 예규, 지침 관련 내용
접근권	장애인도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적 사회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기사화한 내용(엘리베이터나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매체에서 제공하는 수화방송 등이나 이와 관련하여 미설치, 미제공 등과 관련한 기사)

3) 장애유형별 빈도

장애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근거하여 비교·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영역을 주로 조사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장애영역을 기타에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장애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체장애에는 뇌병변장애와 뇌성마비를 포함하였다.

기타에 속하는 장애유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정신장애, 호흡기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주 장애를 명시하지 않은 중복장애 및 장애 유형에 있어 ‘장애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4) 장애관련 용어 서술 실태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장애관련 용어의 서술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우정인(2002)이 신문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에서 제시한 기사내용의 긍정·부정에 관한 기준으로 제시한 표를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분석대상 기사에 대해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 기사의 주제별 성격, 장애유형별 빈도, 용어 서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 분석유목을 토대로 연구자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비교·분석하여 일치된 의견을 구했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SPSS 12.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을 살펴 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12월 152건(23.3%), 5월 60건(9.2%), 4월 57건(8.8%), 11월 52건(7.9%), 8월 50건(7.7%), 10월 45건(6.9%), 9월 44건(6.7%), 6월 43건(6.5%), 7월 42건(6.4%), 3월 39건(5.9%), 1월과 2월은 각각 34건(5.2%) 순으로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3월 1127건(46.3%), 4월 153건(6.3%), 2월과 10월은 147건과 146건(6.0%), 5월 139건(5.7%), 1월 134건(5.5%), 8월 119건(4.9%), 9월 113건(4.6%), 7월 107건(4.4%), 12월 103건(4.2%), 11월 97건(4.0%), 6월 51건(2.1%)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4월과 5월 즈음하여 장애관련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조선일보의 경우는 12월이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3월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

월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장애관련 용어 N(%)	장애관련 용어 N(%)
1	34(5.2)	134(5.5)
2	34(5.2)	147(6.0)
3	39(5.9)	1127(46.3)
4	57(8.8)	153(6.3)
5	60(9.2)	139(5.7)
6	43(6.5)	51(2.1)
7	42(6.4)	107(4.4)
8	50(7.7)	119(4.9)
9	44(6.7)	113(4.6)
10	45(6.9)	146(6.0)
11	52(7.9)	97(4.0)
12	152(23.3)	103(4.2)
계	652(100.0)	2436(100.0)

2. 장애 관련 기사의 주제별 성격

장애 관련 기사를 주제별로 분석해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문화·특수체육·행사 195건(29.9%), 인물·미담사례 156건(23.9%), 사회·심리 123건(18.9%), 의료 48건(7.4%), 접근권38건(5.7%), 제도·정책 29건(4.4%), 특수교육 18건(2.8%), 사건·사고 16건(2.5%), 재활일반과 취업·고용은 각각 13건(2.0%), 재활공학 3건(0.5%) 순으로, 한겨레신문은 사회·심리 1724건(70.7%), 인물·미담사례 203건(8.3%), 문화·특수체육·행사 115건(4.7%), 접근권 106건(4.4%), 취업·고용 73건(3.0%), 제도·정책 66건(2.7%), 사건·사고 60건(2.5%), 특수교육 49건(2.0%), 재활공학 19건(0.8%), 재활일반 11건(0.5%), 의료 10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 문화·특수체육·행사, 인물·미담사례, 사회·심리 관련 주제를 제외하고는 주제별 고른 빈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한겨레신문은 사회·심리 관련 주제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법 제정 시기와 법 제정 전·후 시기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주제별 전 영역에서 법 제정 이전 시기, 법 제정 시기, 법 제정 이후시기로 순차적으로 점차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타 주제별 성격에 비해 사회·심리, 사건·사고, 취업·고용의 경우 법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법 제정 이전 시기가 법 제정 이후 시기보다 주제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심리의 경우 중심주제가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장애관련 용어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내, 광고, 사례 등도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12월의 경우 정치인들의 장애인 시설 방문 및 위문 등으로 장애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 전반의 인식 차원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일보는 문화·특수체육·행사를 한겨레신문은 사회·심리 관련 구체적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울 대보름은 ‘육상 선수권대회 유치’ 기원 - 자치단체마다 주민 뜻 담아 시각장애우 등 위한 행사도>

민간단체들도 이색적인 행사를 펼친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대보름 하루 전인 3일 시각장애우 15명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과 함께 가산산성에서 ‘시각장애우의 마음으로 보는 정월대보름 달맞이’를 연다. 남구 대덕노인복지회관은 5일 오전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 웃놀이대회와 지신밟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갖고, 국제로타리클럽 3700지구 대구 강북로타리클럽은 4일 대동교와 동천교 사이 팔거천 둔치에서 연날리기 대회와 달집태우기 행사를 연다(조선일보, 2007년 3월 2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오늘부터 홀트체육관서>

제13회 고양시컵 홀트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가 17~20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홀트 일산복지타운 장애인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휠체어 농구대회에는 전국 12개 팀이 참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예선리그전을 치른 뒤 각조 1위 팀과 2위 팀이 8강 토너먼트를 치른다. 이밖에 대회 기간에 휠체어 자유투 등의 장애체험, 9사단 군악대 연주, 라틴댄스 공연 등의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진다(조선일보, 2007년 4월 17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빼쇠고기 수입해야 한-미 FTA 비준>

이 협정이 “대한 수출의 주요 장애들을 대부분 제거하는 내용”이라며 “양국 모두에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되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에도 이득이 ...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27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장애관련 기사 주제별 분석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장애관련 기사 주제별 분석

구분	주제별	조선일보 N(%)	한겨레신문 N(%)
법 제정 이전	재활일반	4(3.7)	0(0.0)
	의료	10(9.3)	1(0.1)
	특수교육	1(0.9)	13(0.9)
	문화·특수체육·행사	21(19.6)	22(1.6)
	인물·미담사례	28(26.1)	48(3.4)
	사건·사고	2(1.8)	22(1.6)
	재활공학	0(0.0)	6(0.4)
	취업·고용	4(3.7)	40(2.8)
	사회·심리	15(14.0)	1201(85.3)
	제도·정책	11(10.2)	18(1.3)
	접근권	11(10.2)	37(2.6)
계	107(100.0)	1408(100.0)	
법 제정	재활일반	3(2.6)	1(0.3)
	의료	5(4.3)	2(0.7)
	특수교육	5(4.3)	13(4.5)
	문화·특수체육·행사	37(31.6)	41(14.0)
	인물·미담사례	35(29.9)	37(12.7)
	사건·사고	3(2.6)	21(7.2)
	재활공학	1(0.8)	4(1.4)

구분	주제별	조선일보 N(%)	한겨레신문 N(%)
	취업·고용	1(0.8)	8(2.7)
	사회·심리	16(13.7)	141(48.3)
	제도·정책	4(3.4)	15(5.1)
	접근권	7(6.0)	9(3.1)
	계	117(100.0)	292(100.0)
법 제정 이후	재활일반	6(1.4)	10(1.4)
	의료	33(7.7)	7(1.0)
	특수교육	12(2.8)	23(3.1)
	문화·특수체육·행사	137(32.0)	52(7.1)
	인물·미담사례	93(21.7)	118(16.0)
	사건·사고	11(2.6)	17(2.3)
	재활공학	2(0.5)	9(1.2)
	취업·고용	8(1.9)	25(3.4)
	사회·심리	92(21.5)	382(52.0)
	제도·정책	14(3.3)	33(4.5)
	접근법	20(4.7)	60(8.0)
계	428(100.0)	736(100.0)	
총계		652	2436

3. 장애유형별 빈도

장애유형별 빈도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근거하여 비교·분석해 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시각장애 57건(23.8%), 지체장애 51건(21.3%), 기타 35건(14.6%), 청각장애 27건(11.4%), 정신지체(지적장애) 21건(8.8%), 자폐성장애 18건(7.5%), 건강장애(신장, 심장, 간장애) 12건(5.0%), 학습장애 11건(4.7%), 정서·행동장애 5건(2.1%), 의사소통장애 2건(0.8%) 순으로 한겨레신문은 기타 2256건(85.5%), 지체장애 77건(3.2%), 시각장애 71건(2.9%), 정서·행동장애 54건(2.2%), 건강장애(신장, 심장, 간장애) 45건(1.8%), 정신지체(지적장애) 44건(1.8%), 청각장애 28건(1.1%), 자폐성장애 16건(0.7%), 의사소통장애 8건(0.3%), 발달지체 7건(0.3%), 학습장애 4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감각장애를 비롯한 외현화 장애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일보에는 발달지체라는 용어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새로이 추가된 발달지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가지(기타 제외)의 장애유형을 두루 다루고 있긴

하나 특수교육장면에서 장애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보다는 기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정신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망라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용어를 모두 포함)에 포함되는 장애관련 용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한 대부분의 기사에서 특별히 장애유형을 제시하기보다는 장애, 장애우, 장애인, 장애자, 장애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폐의 경우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긴 하나 말아톤 주인공인 배형진 군과 수영선수 김진호 군의 사례가 자주 소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에서 팔 없는 천사, 버림받은 사람, 비뿔어진 천사, 몸이 불편한 장애인, 소수자, 중병환자, 소외계층, 사회적 소수자 등이 장애인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중증장애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학상식이나 칼럼의 경우 특정 기능의 이상이나 저하를 무분별하게 ‘○○장애’라고 표현하거나, ‘행동장애를 앓게 된다’ 등 마치 장애를 질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일보는 감각장애를 한겨레신문은 기타장애 관련 구체적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 2명 첫 시試 1차 합격>

시각장애인 2명이 범조인으로 가는 첫 관문인 사범시험 1차에 처음으로 합격했다. 법무부는 5일 올해 치른 49회 사범시험 1차 합격자 2808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시각장애인으로 서울대 법대에 제학 중인 최모(24)씨와 같은 대학을 나온 최모(26)씨가 포함됐다”고 밝혔다.....(중략).....논술형인 2차 시험 때는 이들이 자판으로 친 답안을 제3자가 다시 답안지에 대필해서 채점위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조선일보, 2007년 4월 6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 20년, ‘병 주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까지 인류의 장애 요인 가운데 심장질환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것으로.....(중략)..... 그보다는 장애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한겨레신문, 2007년 6월 15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7월 3일 짧은 소식>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가 ‘삼킴 장애(연하곤란) 클리닉’을 최근 열었다. 삼킴 장애는 주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치매 등 뇌질환과 근무력증, 피부경화증, 후두 및 인두... (한겨레신문, 2007년 7월 2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장애유형별 빈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3>과 같다.

<표 III-3> 장애유형별 빈도

구분	유형별	조선일보 N(%)	한겨레신문 N(%)
법 제정 이전	정신지체(지적장애)	1(2.1)	11(0.8)
	학습장애	5(10.4)	0(0.0)
	의사소통장애	1(2.1)	1(0.1)
	청각장애	4(8.3)	5(0.4)
	시각장애	14(29.2)	19(1.3)
	지체장애	12(25.0)	24(1.7)
	정서·행동장애	3(6.3)	19(1.3)
	자폐성장애	4(8.3)	8(0.6)
	발달지체	0(0.0)	1(0.1)
	건강장애 (신장, 심장, 간장애)	0(0.0)	5(0.4)
	기타	4(8.3)	1315(93.3)
계	48(100.0)	1408(100.0)	
법 제정	정신지체(지적장애)	9(15.8)	15(5.1)
	학습장애	2(3.5)	1(0.3)
	의사소통장애	0(0.0)	3(1.1)
	청각장애	6(10.5)	5(1.7)
	시각장애	11(19.3)	14(4.8)
	지체장애	11(19.3)	17(5.8)
	정서·행동장애	1(1.8)	8(2.7)
	자폐성장애	8(14.0)	3(1.1)
	발달지체	0(0.0)	2(0.7)
	건강장애 (신장, 심장, 간장애)	3(5.3)	19(6.5)
	기타	6(10.5)	205(70.2)
계	57(100.0)	292(100.0)	
법 제정 이후	정신지체(지적장애)	11(8.2)	18(2.4)
	학습장애	4(3.0)	3(0.4)
	의사소통장애	1(0.7)	4(0.5)
	청각장애	17(12.7)	18(2.4)
	시각장애	32(23.90)	38(5.2)
	지체장애	28(20.1)	36(4.9)
	정서·행동장애	1(0.7)	27(3.7)
	자폐성장애	6(4.5)	5(0.7)
	발달지체	0(0.0)	4(0.5)
	건강장애 (신장, 심장, 간장애)	9(6.7)	21(2.9)
	기타	25(18.7)	562(76.4)
계	134(100.0)	736(100.0)	
총계		239	2436

4. 장애관련 용어 서술 실태

장애관련 용어의 서술 실태를 긍정적, 부정적, 기타로 분석해 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긍정적 272건(41.7%), 부정적 206건(31.6%), 기타 174건(26.7%) 순으로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긍정적 1096건(45.0%), 부정적 998건(41.0%), 기타 342건(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에서 장애관련 기사가 법 제정 시기를 기점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동시에 부정적인 기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제정과 무관하게 우리사회에서 ‘장애’라는 용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로 상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 제정 이후 부정적인 용어실태가 많은 이유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용어로 ‘선거 장애물’, ‘정치적 장애물’, ‘정동영의 정치행보에 장애’ 의미로 장애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12월(154건 중 92건)에 특히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장애관련 구체적인 용어 서술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빈 접대용 마오타이··덩샤오핑이 즐기던 라오자요·· 중국 술, 얼마나 알고 드세요?>

그 중 중국술은 178명(6%)이었다 한중 교류가 급증하면서 중국술이 한국인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중국술이 한국에서 대중화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가짜 술’이다 중국 술,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마셔야 탈이 없는 것일까 중국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조선일보, 2007년 6월 23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북핵 악화 안 되면 쌀 제공’ 가담>

협약의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서는 장애들은 대범하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진 남쪽 위원장은 답사에서 “이번 회담에서 기왕에 합의했던 경험사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19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사명(使命)>

지난 5년간 우리가 앓아 온 성장 장애 증후군을 치유하는 길도 거기서부터 열리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상위 20% 국민과 하위 20% 국민의 소득 차이는 오히려 더 커졌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일수록 서민을 어렵게 만든다는... (조선일보, 2007년 12월 20일 보도 기사에서 발췌).

<정동영 “청와대, 검찰에 직무 감찰권 행사..>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거치면서 쓰러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힘으로 12월 19일 압도적인 승리를 ... (한겨레신문, 2007년 12월 8일 보도 기사에서 발

취).

장애 용어 서술실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4>와 같다.

<표Ⅲ-4> 장애 용어 서술실태

구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법 제정 이전	긍정적	33(30.8)	586(41.6)
	부정적	25(23.4)	680(48.3)
	기타	49(45.8)	142(10.1)
	계	107(100.0)	1408(100.0)
법 제정	긍정적	52(44.4)	148(50.7)
	부정적	27(23.1)	132(45.2)
	기타	38(32.5)	12(4.1)
	계	117(100.0)	292(100.0)
법 제정 이후	긍정적	187(43.7)	362(49.2)
	부정적	154(36.0)	186(25.3)
	기타	87(20.3)	188(25.5)
	계	428(100.0)	736(100.0)
	총계	652	2436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식 변화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특수교육, 사회복지를 비롯한 제반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동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장애관련 법’이라 함)등의 장애관련 법 제정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매스미디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주요 일간지 중에서도 보도 성향을 달리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기사내용을 장애관련 용어의 월별 동향, 기사의 주제별 성격, 장애유형별 빈도, 용어 서술실태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정 전, 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관련 월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12월이 가장 높은 반면 1월과 2월에 가장 낮은 빈도를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3월이 가장

높은 반면 6월에 가장 낮은 빈도로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에서 전반적인 월별 동향이 연초에 비해 연말로 나아갈수록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사별 월별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즉, 연말에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고 제시한 내용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이정숙, 2004; 배현정, 2006; 정화원, 2005).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언론 보도가 사회적 담론을 대변하는 주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주지한다면 향후 기사보도의 행태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날과 연말 행사가 많은 특정 달에 편중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언론사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장애관련 기사의 주제별 성격을 분석해본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에서 빈도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문화·특수체육·행사, 인물·미담사례, 사회·심리가 다른 주제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법 제정 시기와 법 제정 전·후 시기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주제별 전 영역에서 법 제정 이전, 법 제정, 법 제정 이후로 순차적으로 점차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타 주제별 성격에 비해 사회·심리의 경우 법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법 제정 이전 시기가 법 제정 이후 시기보다 주제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심리의 경우 중심주제가 앞서 연구방법에서도 제시했듯이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장애인식이나 이해, 인권 등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내용 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와 관련하여 사회전반의 인식이나 이해와 관련하여 사회에 대항하거나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는 있으나, 중심주제가 장애인과 관련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장애관련 용어 포함(예, 화물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부산항 물류 장애 발생 등)하였으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내, 광고, 사례 등도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12월의 경우 정치인들의 장애인 시설 방문 및 위문 등으로 장애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 전반의 인식 차원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관련 기사의 주제별 성격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대다수의 기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로서의 역할 즉,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환경감시의 역할 이외에 단순 정보전달에서 나아가 의미를 파악하고 대안책을 제공하여 사람의 태도 변화에 기여하는 상관조정의 역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우정아, 2000; 이정숙, 2004; 홍용신, 2004; 배현정, 2006; 정화원, 2005). 따라서, 향후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장애관련 기사의 주제를 선정 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신체적 손상을 뛰어 넘어 사회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는 동반자로서 장애인을 수(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유형별 빈도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근거하여 비교·분석해 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시각장애, 지체장애,

기타, 청각장애가 한겨레신문은 기타, 지체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나타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감각장애를 비롯한 외현화장애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용신(2004)이 시대별 장애아 관련 신문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체장애아동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결과나 정화원(2005)이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에는 발달지체라는 용어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발달지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가지(기타 제외)의 장애유형을 두루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문사별 다른 논조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정신장애, 호흡기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타의 장애관련 용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한 대부분의 기사에서 특별히 장애유형을 제시하기보다는 장애, 장애우, 장애인, 장애자, 장애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장애인의 경우도 비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등으로 혼용하여 쓰이고 있었다. 자폐의 경우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긴 하나 말아톤 주인공인 배형진 군과 수영선수 김진호 군의 사례가 자주 소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에서 팔 없는 천사, 버림받은 사람, 비뿔어진 천사, 몸이 불편한 장애인, 소수자, 중병환자, 소외계층, 사회적 소수자 등이 장애인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중증장애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학상식이나 칼럼의 경우 특정 기능의 이상이나 저하를 무분별하게 ‘○○장애’라고 표현하거나, ‘행동장애를 앓게 된다’ 등 마치 장애를 질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지적능력의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손상(impairment)이라는 측면에서 장애를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한시바빠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언론사 또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와 더불어 신문 기사의 보도가 정확한 사실을 통해 장애인의 올바른 시각과 이미지를 정립시켜 나가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관련 용어의 서술 실태를 긍정적, 부정적, 기타로 분석해 본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둘 다 장애관련 기사가 법 제정 시기를 기점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정적인 기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제정과 무관하게 우리사회에서 ‘장애’라는 용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로 상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과는 신문 기사 보도 행태속의 장애인 이미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사의 비율이 부정적인 기사의 비율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아, 2000; 이정숙, 2004; 홍용신, 2004; 배현정, 2006; 정화원, 2005).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모니터 역할을 강화시키

고 오도된 보도의 정정이나 규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두 신문만을 선택하여 지난 1년간의 장애관련 용어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일간지를 비교·분석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보도 행태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구현정(2002). 통신언어-언어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 39, 251-277.
- 김미정(2000).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자아의식과 차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혜(2007). 독립형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장애 관련 보도경향에 대한 내용 분석. **이화사회복지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 김성완·윤진상·이무석·이형영(2000).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병에 대한 기사 분석. **신경정신의학**. 39(5), 838-848.
- 김호연(2005). 시사주간지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기사 보도의 내용 분석 -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Time지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연구**. 12(1), 99-118.
- 남기성(2006).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은 어떻게**. 경기도 파주 : 자유아카데미.
- 박경자·유석훈(1986). **스타인버그의 심리언어학**. 서울 : 한신문화사.
- 배현정(2006).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를 활용한 장애관련 보도행태에 대한 내용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성태제·시가자(2006). **연구방법론**. 서울 : 학지사.
- 심훈(2003).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현황과 문제점 : 6하 원칙을 기준으로 바라본 공익성과 공정성에 관한 고민. **2003년 한국언론학회 및 KBS공동 심포지엄**. 7-32.
- 양문석·김동준(2008). 신문산업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신문발전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2007-12, 1-95.
- 우정아(2000). 신문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윤희중(1985). 신문 사설에 나타난 여성 문제. **신문학보**, 19.
- 이용성·김정순(2008). 신문산업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 신문지원 기관의 정상화와 통합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중심으로. **신문발전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2007-03, 1-133.
- 이정숙(2004).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장애관련 기사 내용 분석. 석사학위 논문. 부산 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중(2003). 교육에 있어서 언어와 삶의 근원적 성격 : 유식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지중·고진호(2005). 언어와 삶의 유식학적 성격, **동양철학**. 23, 207-227.
- 왕한석(1996). 언어·사회·문화 - 언어 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3-50.
- 이효신(2003). 영상매체 활용이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설문태도와 어휘 태도에 미치는

- 효과. **언어치료연구**. 12(2), 81-95.
-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1997).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매뉴얼. 서울 :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05. 07. 29 법률 7630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제정 2007. 04. 10 법률 제834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시행령(제정 2008. 04. 10 대통령령 제20766 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2007. 05. 25 법률 제8483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 2008. 05. 26 대통령령 제20790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정 2008. 06. 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 전경수(1996). **문화의 이해**. 서울 : 일지사.
- 정화원(2005).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최성규 · 박종훈(2002). 특수교육 용어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비교.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25(2), 277-287.
- 최성규(2004).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용어에 대한 어휘별 인식 비교. **언어치료연구**. 13(2), 93-115.
- 최성규 · 이숙조(2005).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력 및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4(1), 127-154.
- 최성욱 · 이제화 · 이수진 · 김민정(2007).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7, 141-166.
- 최현철(2003). **미디어 연구 방법 : 응용과 실습**. 서울 : 한나래.
- 한국언론재단(2006). **한국신문방송연감**. 서울 :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재단(2007). **한국신문방송연감**. 서울 : 한국언론재단.
- 홍용신(2004). 시대별 장애아 관련 신문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Boas, Franz(1911). *Introduction to the Handbook of American Indian Languages*. Washington, D.C.
- Goodenough, Ward H(1956). Componential Analysis and Study of Meaning. *Language*. 32, 195-216.
- Hoggart, Richard(1970).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 An Apporach to the Study of Literature and Society, In Malcolm Bradbury and David Palmer, eds., *Comtemporary Criticism, Stanford-upon-Avon Studies* 12, London: Arnold.
- Mandelbaum, David G(1949). *Editor's Introduction. in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ed. by David Sapir, ed. by David G. Mandelbau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v -xii.
- Sapir, Edward(1921). *Language*.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World.
- Sherzer, Joel(1973). Areal Linguistics in North America. in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ed. by Thomas A. Sebeok, *The Hague : Mouton*, 10(2), 749-795.
- Whorf, Benjamin Lee(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 Selected Writings of Benjamin Lee Whorf*. ed. by John B. Carrol, Cambridge : MIT press.
-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The Actual Condition of Disability Related Terms Description and Improvement Plan in a Daily Papers – Focused on Adopting Disability Related Legislation in 2007

Choi, Seong-ook

Busan Nagdong Elementary school

Lee, Jea-hwa

Yeo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Do, Myoung-Ae

Daegu Neul Sarang Nursery School

Hur, U-sung

Jeju Daykey High School

Lee, Jeong-nam

Wonju Chongwon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ould present basic data to seek positive change in the society in general as well as the future special education, social welfare after considering the change degree of disability recognition through all classes of society, started from disability related law making period such as The Bill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People(April, 10, 2007) and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Like(May, 25, 2007). To achieve the goal, we have chosen the newspaper articles playing much a role in the mass media as an analysis object. Among the major dailies,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news was selected because they have a different propensity to report against each other. Then, we have compared and contrasted th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making the law with the whole contents from January, 1, 2007 to December, 12, 2007 in the dailies by the application of four subjects- the monthly trends of disability related terms, sectioned features of the article, the frequency of disability type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erms description

Key Words : The Bill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People,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Like, disability, newspaper articles.

논문 접수: 2008. 8. 5 심사 시작: 2008. 8. 11 게재 확정: 2008. 9. 26